

고 정 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사와 학생을 통해 알아본 수준별
영어 수업의 효과 및 개선방안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황 선 경

교사와 학생을 통해 알아본 수준별
영어 수업의 효과 및 개선방안

고 정 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황 선 경

인 준 서

황선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준별 수업의 효과와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자립형 공립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고 수업에 임한 예비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영어교과 선생님 9명과 1,2학년 학생 222명에게 배부되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며, 교사용은 10개의 항목(기본사항, 교수법,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어사용, 교재, 반배정, 멀티미디어 사용)으로 구성되며, 학생용은 3개의 항목(기본사항, 수준별 학습 관련, 원어민 교사 수업 관련)으로 구성된다. 설문은 상·중상·중하·하반 학생 모두에게 실시하였으며, 연구는 상반과 하반 학생을 중심으로 비교·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수준별 수업의 진행 현황, 수준별 수업의 효과, 수준별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연구 문제 가설을 설정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학생의 레벨에 따라 교수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것이다.

가설 2. 학생의 레벨에 따라 교사의 영어 사용정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 3. 학생의 레벨에 따라 교재 활용법이 다를 것이다.

가설 4. 학생의 레벨에 따라 각각 다른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위의 가설을 확인해 본 결과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가 모두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가설1에 대하여 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스킬(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을 가르칠 때, 각 영역별 활동에 변화를 주었다. 상반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활동을 실시하고, 하반은 대체적으로 쉬운 활동을 진행하였다. 가설2에서는 교사가 상반에서 수업을 할 때 하반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가설 3에서도 교사는 학생의 레벨에 따라 추가 및 보충 교재를 사용하여 교재활용법에 차이를 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설 4에서는 상반에서는 파워포인트를, 하반에서는 파워포인트와 비디오 영상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하반에서는 상반보다 좀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항목은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이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교사와 학생 모두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 학생의 레벨에 따라 수준별 수업 이후 영어실력이 향상된 분야가 다를 것이다.

가설 3. 수준별 수업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

가설 4. 교사의 영어사용이 상반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하반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두 번째 항목의 모든 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먼저 가설 1에 대해서는 교사 모두가 수준별 학습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학생은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하반 학생보다 상반 학생이 수준별 학습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 2에서는 학생의 레벨에 따라 실력이 향상된 분야가 다름이 증명되었으며, 상반에서는 문법, 하반에서는 읽기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 가설 3에서는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받아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수치는 학생의 실력이 낮을수록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설 4에서는 교사의 영어 사용이 상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하반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은 수준별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생의 레벨에 따라 이상적인 학생 수 및 반편성 방법이 다를 것이다.

가설 2. 학생의 레벨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야가 다를 것이다.

가설 3. 학생의 레벨에 따라 이상적인 수업 방식이 다를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위의 가설 3개 모두가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가설1에 관하여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생수는 학생의 레벨에 따라 다름이 증명되었다. 상반은 이상적인 학생수로 20-10명, 하반은 이상적인 학생수로 10명 미만이 선택되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반편성 방법으로는 상반과 하반 모두 중간, 기말고사 점수로 반편성 하기를 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가설 2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상반에서는 듣기를, 중상·중하·하반 모두에서는 쓰기 실력을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 3에서는 학생의 레벨에 따라 이상적인 수업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교사는 상반에서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하반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희망하는 수업 방식 또한 레벨에 따라 달랐는데, 상반 학생들은 그룹활동을 통해 배우는 방법을 선택한 반면, 하반 학생들은 교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교사들이 학생의 레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교수법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이끌어낸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보다 더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한 개선방안이 학생의 레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하나의 특정 학교에 국한되어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습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하여 그들의 흥미와 요구에 맞추어 수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연구	4
III. 연구방법	13
1. 연구대상	13
2. 연구도구	14
IV. 연구의 결과 분석	15
1. 수준별 수업의 진행 현황.....	15
1) 교수법	15
2) 듣기	16
3) 읽기	17
4) 말하기	18
5) 쓰기.....	19
6) 영어 사용	20
7) 원어민 교사의 수업	21
8) 교재	23
9) 반배정	24
10) 멀티미디어 사용	25
2. 수준별 수업의 효과.....	26
1) 수준별 수업의 효과	26
2) 수준별 수업 후 실력 향상 정도.....	27
3) 수준별 수업의 장점	29
4)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효과	30
3. 수준별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	32

1) 이상적인 반편성 방법.....	32
2) 수준별 수업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야.....	33
3) 이상적인 수업 방식.....	34
V. 요약 및 결론.....	36
참고문헌.....	40
ABSTRACT(영문초록).....	45
부록-설문지(교사용, 학생용).....	47

표 목차

<표 III-1> 수준별 수업 분반 형태	13
<표 III-2> 교사용 설문지 문항 구성	14
<표 III-3> 학생용 설문지 문항 구성	14
<표 IV1-1-1> 수준별 수업시 차별화하는 부분	16
<표 IV1-2-1> 듣기 전 활동	16
<표 IV1-2-2> 듣기 후 활동	17
<표 IV1-3-1> 읽기 활동.....	17
<표 IV1-4-1> 말하기 활동	18
<표 IV1-4-2> 말하기 지도시 중점을 두는 사항.....	19
<표 IV1-5-1> 주요 쓰기 활동	19
<표 IV1-5-2> 오류 수정 방법.....	20
<표 IV1-6-1> 영어 사용 빈도.....	20
<표 IV1-6-2> 영어 사용 항목.....	21
<표 IV1-6-3> 영어 이해 정도.....	21
<표 IV1-7-1>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대한 흥미여부	22
<표 IV1-7-2>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흥미로운 이유	22
<표 IV1-7-3> 원어민 교사의 수업 이해 여부	23
<표 IV1-8-1> 교재 난이도.....	23
<표 IV1-8-2> 수업의 난이도 조절방법.....	24
<표 IV1-8-3> 교과서에서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항목	24
<표 IV1-9-1> 반배정 방식 만족도.....	25
<표 IV1-10-1>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25
<표 IV1-10-2>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	25

<표 IV2-1-1> 수준별 학습의 효과(교사)	26
<표 IV2-1-2> 수준별 학습의 효과(학생)	27
<표 IV2-1-3> 원어민 수업이 영어 실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상반-Red 반)	27
<표 IV2-2-1> 실력 향상 분야.....	28
<표 IV2-2-2> 퀴즈나 게임을 통한 실력 향상 정도	28
<표 IV2-2-3>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 분야.....	29
<표 IV2-3> 수준별 학습의 장점	29
<표 IV2-4-1> 영어 사용 효과(교사)	30
<표 IV2-4-2> 영어 사용 효과(학생)	31
<표 IV3-1-1> 희망하는 반편성 방법(학생).....	32
<표 IV3-1-2> 반별 이상적인 학생 수(교사)	33
<표 IV3-2-1> 실력 향상 희망 분야.....	33
<표 IV3-2-2> 보충 받고 싶은 부분	34
<표 IV3-3-1> 효과적인 교수법(교사).....	34
<표 IV3-3-2> 희망하는 수업 방식(학생)	35
<표 IV3-3-3> 한국어 수업 희망 부분.....	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국제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영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매개체 중 하나로 자리잡아왔다. 제 2언어 혹은 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는 곧 교육현장에 반영되었다. 교과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영어 교육의 확대를 선언하였으며, 중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수업의 도입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수준별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달리하고 개개인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여 개별화 수업을 제공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다른 과목과는 달리 영어는 학습자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흥미를 잃고 학생간의 개인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Lee와 Park, 2001; 김재혁, 2002).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획일적인 수업으로 인해 능력이 높은 학습자는 이미 아는 내용이거나 쉬운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흥미를 잃게 되고, 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내용을 학습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결국 학습하기를 포기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학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에 맞추어 상·중·하로 반편성을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영어과 수준별 수업을 구현하는 방안으로는 학급내 수준별 수업과 수준별 이동식 수업으로 나눌 수 있다. 학급내 수준별 수업은 학급내에서 동질화되거나 이질화된 소집단을 구성하여 기본 학습 내용 외에 심화·보충학습을 시행한다. 하지만 한 학급 내에서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반면 수준별

이동식 수업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어 반 전체의 수준을 동질화시켜 진행한다. 반 전체의 수준을 동질화시킴으로써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어서 학급내 수준별 수업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인숙, 2005). 이러한 까닭으로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학급내 수준별 수업보다 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의 시행에 관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초·중등 영어교사 52명 중 36명(69%)이 수준별 수업을 한다고 하였고(박상옥, 2004), 박선화(2005)는 76%가 수준별 수업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이미 수준별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준별 수업의 장점과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다.

최명희(2000)는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혼란감, 낮은 교실에 대한 적응 곤란, 소속감 결여 등을 제기하였으며, 김재익(2003)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고등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교실분위기의 산만함, 이동수업의 불편함, 소지품 분실 등으로 수준별 수업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농어촌마을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수준별 수업의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수준별 수업의 효과와 문제점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개인차뿐만 아니라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실제 학습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생과 교사들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을 상·중·하 그룹으로 나누고,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준별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문제 1. 현재 수준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수준별 수업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연구문제 3. 수준별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II. 이론적 연구

우리나라에서 수준별 수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건의로부터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생의 수준에 따라 속진과 재이수를 허용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은 단계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은 7차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면서 많은 변동을 겪었다. 국어, 사회, 과학, 초등 영어는 심화·보충형으로 편성하고, 수학과 중등 영어는 단계형으로 하되, 나머지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재이수는 허용되었지만 속진은 금지되었고, 학급간 이동보다는 학급내 집단 편성을 위주로 하였으며,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 특별 보충과정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거의 실행되지 못하였다(김재춘, 2004). 그러다가 2004년 2월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교 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수준별 이동수업이 급속히 확산되었다(성열관, 2008).

본격적인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2005년에는 중학교의 47.7%, 고등학교의 55%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선화 외, 200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수는 점점 증가되었고, 2008년에는 98.9%의 중학교가 영어,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2008).

현재는 수준별 수업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수준별 수업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주장하며 수준별 수업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수준별 수업을 지지하는 연구에는 크게 정의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정의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로는 김종신(1999), 권처연(2000), 그리고 한용호(1998)가 있다. 연구자들은 학급내 수준별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소집단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집단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교사의 강의를 중심으로한 통제집단과 교사가 제시한 수준별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준별 소집단 학습이 학습 동기 유발이나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인숙(2005)은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년과 집단에 따른 인식 비교’에서 학생들이 자신과 같은 수준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을 수준별 수업의 장점으로 꼽아 비슷한 학습집단을 통한 수준별 수업이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준별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년간의 인식차이를 1,2,3학년에서 비교해본 결과, 대부분 3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수준별 수업의 누적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김용석(2011)은 수준별 이동수업이 영어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수준별 수업이 초기값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영어자아효능감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 이유로 상위집단 학생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성취경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성공적인 대리경험을 통해 영어자아효능감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나 부모로부터 더 자주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영어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고 보았다. 반면 하위집단 학생들에게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영어자아효능감을 낮추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영어자아효능감의 초기 수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우호적인 관계형성, 수준별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및 적절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수준별 수업의 인지적 효과를 증명한 전영주, 강용구, 송해성(2006)은 ‘WBI 수준별 수업을 통한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 방안’에서 영어 학업성취도와 영어듣기 능력, 영어에 대한 흥미도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결과, T검증을 통해 결과치가 5%에서 $P < 0.05$ 로 나타나 WBI 수준별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음을 증명하였다.

강보람, 조운경(2012)는 ‘중학교 영어과 수준별 수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수준별 수업 실시 후, 수준별 분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하급반 학생들의 성적은 꾸준히 향상된 반면, 상급반 학생들의 성적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반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된 이유로 이미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천장효과로 인해 중간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평가문항의 대부분이 하급반 내용에서 출제됨으로써 상급반 학생들의 의욕을 저하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강보람, 조운경(2012)은 연구를 통해 하급반 학생들도 수준별 수업을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받게 되면 기초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학력 신장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효과는 초등영어에서도 나타났는데, 윤상미, 한호(2008)는 ‘초등영어 수준별 실험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아동들은

비실험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영어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고, 듣기평가에서도 실력이 향상되었다. 연구과정을 살펴보면 수준별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은 보충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수준에 맞게 소집단 활동을 하여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였으며, 심화·보충단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언어 입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루하지 않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었으며, 말하기, 듣기 능력도 향상되었다. 또한 심화·보충의 그룹활동을 통하여 협동심을 길러주고 적절한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권선희, 이정은(2012)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약 12개월동안 수준별 영어 수업을 실시한 결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실력향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영어 실력 향상은 학생들의 수준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급반 학생들보다는 하급반 학생들이, 6학년보다는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와 수업조력자들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지도와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도 있었다. 최미정, 정영숙(2009)은 주제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준별 통합수업의 인지적, 정의적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읽기와 쓰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상위권 학생들보다 하위권 학생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위권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 영역에서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중위권 학생들은 말하기에서만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흥미도에서만 유의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준별 학습은 특히 하위권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연구들도 있다. 최명희(2000)는 연구를 통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수준별 이동식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은 정서적 혼란함(63명), 낯선 교실에 대한 적응 곤란(36명), 시간 지체의 문제점(28명), 소속감 결여(25명), 사물 분실(22명)문제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동불편(39명), 효과 없음(27명), 분위기 산만(26명), 위화감 조성(25명), 능률 저하(19명), 귀찮음(15명), 시간낭비(11명)를 들었다.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계속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는 4명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아직 학생들 사이에서 수준별 수업이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익(2003)은 2002년과 2003년 2차례에 걸쳐 고등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해 시범학교 사례를 조사하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학력에 미친 영향, 학습 집단 편성 방법, 학습 자료,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교실분위기의 산만함, 이동수업의 불편함, 소지품 분실, 하위반 학생들의 사기저하, 수업내용과 평가의 불일치,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개발에 따른 교사의 부담감 등이 지적되었다. 2002년과 2003년에 수준별 수업에 대한 비교분석에 따르면, 2002년도에 고1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 시행(23%)이 2003년에도는 20.8%로 줄었으며, 학생들도 이동식 수업(35.5%)보다는 학급내 수준별 편성(64.5%)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자, 정정옥(2005)이 연구한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학생들 모두 수준별 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학습의욕 향상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수준별 이동수업전보다 평균이 떨어졌으며, 특히 하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더 떨어져서 수준별 수업이 하위집단 학생들에게 더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수업시간의 소란’으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업태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유성, 남창우(2009)는 ‘학습부진 프로그램, 수준별 이동수업 및 사교육이 저성취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 학습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기초기능 학습 및 교과부진 프로그램 참여 여부, 수준별 이동수업, 그리고 사교육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3년간의 수학 학업성취도에서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사교육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반해, 교과부진 프로그램은 오히려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대학교 수준별 수업에서도 나타났다. 김영숙, 이지영(2009)은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수준별 교양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학업 성취도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상위집단의 학생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김영숙, 이지영(2009)은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서 반편성은 수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4기능을 통합하여 외국인 교수에게 수업을 듣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듣기와 읽기 기술에만 치중되어 있는

수능 영어 시험은 안면타당도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대신 외국인 교수와의 구두 면담이나 자기평가를 통하여 객관도나 신뢰도보다는 다양성 및 타당도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상급반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수업 방법 외에 평가방안에 대해 학교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상위반에서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한다거나, 장학금 혜택이나 근로 조교 배정에 우선순위를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하위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특별 보충수업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백병부(2010)는 수준별로 편성된 하반 학생들에게 학습부진 극복을 위한 특별 보충수업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에서 하반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수학과목에서 수준별 하반에 편성된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학습부진을 극복할 개연성이 낮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영어 과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고 했다. 백병부(2010)는 하반 학생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구 사회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보상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맥락과 일치한다고 했다. 수준별 수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집단의 편성을 고수하되, 개별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의 교수-학습 모형이나 학급 내에서의 협동 학습 모형, 수월성 제고를 고려한 속진 학교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활한 교수 활동을 위해 교사 양성 과정에서 수업의 기법을 철저히 익히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윤용진(1998)은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안’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절대기준의 평가 모형에 의거한 문제은행이 정부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고, 제작된 문항이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수준별로 맞추어진 보충교재나 교수-학습 모형이 학교가 아닌 시·도 교육청에서 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는 수준별 수업을 보충, 기본, 심화 세 단계로 분반하여 편성하되, 최하위 단계에 속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성취를 위해서 별도의 보충 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의 불편함과 산만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크기와 시설이 수반된 별도의 학습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네 번째 방안으로는 교사간의 교수방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 학년, 동일 교사간에 학습지도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수업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공개수업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과 재량 활동을 이용하여 수준별 수업을 하는 영어교과의 경우 각 단계별 배정 단위를 달리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수준별로 분반하여 진행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련된 연구(김재익, 2003; 전우성, 1997, 이은희, 1998; 최명희, 2000; 최창엽, 1998)에서는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학급의 인원수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다양한 수준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수급, 교과 교실 확보, 수준별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신인숙(2005)은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년과 집단에 따른 인식 비교’에서 교육과정의 수준이 학생들에게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향후 수준별 이동수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여러 수준을 반영하는 활동을 삽입하거나, 수준별로 분리된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인지적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나 수업방식,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흥미나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흥미와 적성, 실력차를 인정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며, 많은 연구들이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나타내는 연구들 또한 적지 않았다. 그렇기에 아직은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수준별 수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15년이 지난 현재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언급하였던 많은 연구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안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수업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와 예비교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복수응답도 허용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자립형 공립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1,2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과 교사 9명과 예비교사 1명, 1,2학년 학생 222명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설문에 응한 교사의 성별은 모두 여자였으며, 그들의 교직경력은 5년 미만(5명), 5~10년 미만(2명), 10~20년 미만(2명)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예비교사는 1주간의 수업참관 후, 담당 교사의 지시를 받고 수업에 임한 영어교육과 학생으로 교생실습 3주차에 인터뷰에 응하였다. 연구가 실시된 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은 학년당 총 4개의 레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분반 형태는 아래와 같다.

<표 III-1> 수준별 수업 분반 형태

수준	Red반 (상반)	Yellow반 (중상반)	Blue반 (중하반)	Green반 (하반)
인원수	20명	20명	15명	10명

각 반의 학생 성비를 살펴보면 Red반은 약 75%(15명)가 여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Yellow반과 Blue반 각 50%(남,여 각 10명)씩, Green반은 약 100%(10명)가 남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예비교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설문지가 작성되었으며, 설문지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교사용 설문지는 총 8장이며, 29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나뉜다(기본사항, 교수법, 네 가지 스킬 관련 질문(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어 사용여부, 교재, 반배정, 멀티미디어 사용).

<표 III-2> 교사용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문항수
기본사항	4
교수법	5
듣기	2
읽기	3
말하기	2
쓰기	2
영어사용	3
교재	3
반배정	4
멀티미디어사용	3

학생용 설문지는 총 4장이며,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뉜다. (기본사항, 수준별 학습 관련, 원어민 교사 수업 관련(상반 학생만 참여))

<표 III-3> 학생용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기본사항	수준별 학습 관련	원어민 교사 수업 관련
문항수	2	13	5

IV. 연구 결과 분석

설문 조사에 응한 교사들은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젊은 교사들로 수준별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예비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가 진행된 학교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학생들을 적절한 레벨로 나누어 체계적인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수준별 수업의 진행 현황

1) 교수법

수준별 수업을 통해 교사들은 상반과 하반에서 각각 다른 수업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상반에서는 응답자의 77.8%(7명)가 교사-전체학생의 수업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하반에서는 100.0%(9명)가 교사-학생 개개인 형태의 수업방식을 사용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예비교사는 하반에서 수업을 할 때 인원수가 적어서 학생들에게 문제 풀기 및 그룹 활동을 시킨 후, 모든 학생의 과업 완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뒤처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점이 수준별 수업의 장점이라고 하였다. 교사들은 또한 수준별 수업에서 가장 차별을 두는 부분에 대해 강의 속도를 꼽았다(35.7%-5명). 특히 하반에서는 수업 속도를 좀 더 늦추고, 학생들이 확실히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 반복 설명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교실활동, 영어 사용 정도, 과제에 차이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표 IV1-1-1> 수준별 수업에서 차별화하는 부분

구분	강의 속도	교실 활동	영어 사용 정도	과제
백분율(%)	35.7%(5명)	21.4%(3명)	21.4%(3명)	21.4%(3명)

2) 듣기

교사들이 듣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학생의 레벨에 따라 달랐다. 상반에서는 듣기 전 수업 활동으로 ‘브레인스토밍’ (63.6%-7명)을, 하반에서는 듣기지문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학습’ 활동(80.0%-8명)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하반 학생들에게 단어 학습을 먼저 시키는 이유는 학생들의 어휘량이 부족하여 듣기 활동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표 IV1-2-1> 듣기 전 활동

구분	시각 자료 제시	브레인스토밍 활동	듣기지문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학습
상반	18.2%(2명)	63.6%(7명)	18.2%(2명)
하반	20.0%(2명)	0.0%(0명)	80.0%(8명)

듣기 후 활동으로는 상반에서는 45.5%(5명)가 ‘내용 요약하기’ 를 사용하였고, 하반에서는 80.0%(8명)가 ‘대본 따라읽고 해석하기’ 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표 IV1-2-2> 듣기 후 활동

구분	핵심내용 찾기	받아쓰기	내용요약하기	대본 따라읽고 해석하기
상반	18.2% (2 명)	18.2% (2 명)	45.5% (5 명)	18.2% (2 명)
하반	10.0% (1 명)	0.0% (0 명)	10.0% (1 명)	80.0% (8 명)

3) 읽기

읽기 활동으로 상반에서는 ‘읽기에 관련된 질문에 학생 스스로 답 찾기’ (58.3%-7명)가, 하반에서는 ‘모든 지문 읽고 해석하기’ (90.0%-9명)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예비 교사가 수업을 하였을 때, 상반 학생들은 스스로 지문을 읽고 독해하기가 가능하여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았으나, 하반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지문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교사와 함께 해석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표 IV1-3-1> 읽기 활동

구분	모든 지문 읽고 해석하기	읽기에 관련된 질문에 학생 스스로 답 찾기	그룹활동
상반	33.3% (4 명)	58.3% (7 명)	8.3% (1 명)
하반	90.0% (9 명)	10.0% (1 명)	0.0% (0 명)

교사들은 읽기 지도를 할 때, 교과서 외에 기타 읽기 자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반에서 55.6% (5명)가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하반에서는 22.2% (2명)만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4) 말하기

말하기 수업에서는 상·하반 모두 ‘패턴 연습’ 과 ‘다이얼로그 읽기’ 를 주로 진행하여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예비교사는 두 반 모두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활동보다는 기본적인 패턴 연습이나 다이얼로그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상반에서는 기본적인 말하기 연습 이후에 상황극을 연출하는 말하기 활동도 병행한다고 하였다.

<표 IV1-4-1> 말하기 활동

구분	직소활동	상황극	다이얼로그 읽기	패턴연습
상반	0.0%(0명)	22.2%(2명)	33.3%(3명)	44.4%(4명)
하반	0.0%(0명)	0.0%(0명)	50.0%(5명)	50.0%(5명)

교사들이 말하기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는 부분은 상·하반 모두 ‘학생들에게 자신감 불어넣어주기’ 였다. 예비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어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부분에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표 IV1-4-2> 말하기 지도시 중점을 두는 사항

구분	학생들에게 자신감 불어넣어주기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오류 수정해 주기
상반	55.6%(5명)	44.4%(4명)	0.0%(0명)
하반	77.8%(7명)	22.2%(2명)	0.0%(0명)

5) 쓰기

교사들은 학생들과 쓰기 활동 진행시 상·하반 모두에게 ‘교과서 읽기 파트의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쓰기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상반에서는 간단한 쓰기 활동 이후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자유 글쓰기’를 가끔 진행하였다. 수업을 진행한 예비교사는 쓰기 실력이 부족한 하반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화려한 색채와 그림이 많이 삽입된 추가 쓰기 교재를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표 IV1-5-1> 주요 쓰기 활동

구분	교과서 읽기 파트의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쓰기 활동	영어 일기 쓰기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자유 글쓰기	기타
상반	88.9%(8명)	0.0%(0명)	11.1%(1명)	11.1%(1명)
하반	66.7%(6명)	0.0%(0명)	11.10%(1명)	22.2%(2명)

쓰기 활동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오류 수정을 해 주는 방식을 각각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먼저 상반에서는 ‘오류 수정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시만 해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고치게 하는 방법’ (55.6%-5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하반에서는 ‘틀린 것 대부분을 교사가 고쳐주는 방식’ (66.7%-6명)으로

진행하였다.

<표 IV1-5-2> 오류 수정 방법

구분	오류 대부분을 고쳐준다	큰 오류만 고쳐준다	오류 수정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시만 해주고 학생이 고치게 한다
상반	33.3%(3명)	11.1%(1명)	55.6%(5명)
하반	66.7%(6명)	33.3%(3명)	0.0%(0명)

6) 영어 사용

교사들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와 영어 사용 항목을 달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사들은 상반에서 ‘영어를 20~30% 사용한다’ (77.8%-7명)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하반에서는 55.6%(5명)가 ‘20~30%의 영어를 사용한다’ 고 하였고,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는 응답도 44.4%(4명)나 되었다.

<표 IV1-6-1> 영어 사용 빈도

구분	100%	50%	20~3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상반	0.0%(0명)	11.1%(1명)	77.8%(7명)	11.1%(1명)
하반	0.0%(0명)	0.0%(0명)	55.6%(5명)	44.4%(4명)

영어를 사용하는 항목에 대해서 상반에서는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주로 영어를 사용’ (53.8%-7명)하고, 하반에서는 ‘간단한 인사말’ (55.6%-5명)을 할 때 사용한다고 답했다.

<표 IV1-6-2> 영어 사용 항목

구분	인사말	지시사항	내용설명	과제설명
상반	15.4%(2명)	53.8%(7명)	15.4%(2명)	15.4%(2명)
하반	55.6%(5명)	44.4%(4명)	0.0%(0명)	0.0%(0명)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나?’ 는 질문에 상반학생들은 67.9%(55명)이 선생님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완벽히 알아듣거나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다’ 고 하였으며, 하반 학생들은 83.8%가 ‘반정도 이해하거나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고 응답하였다.

<표 IV1-6-3> 영어 이해 정도

구분	완벽히 이해한다	대부분 이해한다	반정도 이해한다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Red 반	12.3%(10명)	55.6%(45명)	23.5%(19명)	19.8(16명)
Yellow 반	6.0%(4명)	40.3%(27명)	40.3%(27명)	13.4%(9명)
Blue 반	4.7%(2명)	32.6%(14명)	44.2%(19명)	18.6%(8명)
Green 반	0.0%(0명)	16.1%(5명)	54.8%(17명)	29.0%(9명)

7) 원어민 교사의 수업

본 연구가 진행된 학교에서는 상반 학생들에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재미있느냐’ 는 질문에 83.9%(68명)가 매우 재미있거나 재미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재미없다’ 를 선택한 학생은 6.2%(5명)에 그쳤다.

<표 IV1-7-1>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대한 흥미여부

구분	매우 재미있다	재미있다	보통이다	재미없다
백분율(%)	39.5%(32명)	44.4%(36명)	16.0%(13명)	6.2%(5명)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재미있는 이유로는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 (46.9%-38명)는 반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의 스타일이 재미있어서 좋다’가 37.0%(30명)로 높았다.

<표 IV1-7-2>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흥미로운 이유

구분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수업방식이 재미있다	선생님 스타일이 재미있다	기타
백분율(%)	27.2%(22명)	59.3%(48명)	11.1%(9명)	7.4%(6명)

영어로만 진행되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27.2%(22명)가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며, 59.3%(48명)가 ‘약간 지장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에 응답하여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1-7-3>원어민 교사의 수업 이해 여부

구분	전혀 지장이 없다	약간 지장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보통이다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다
백분율 (%)	27.2% (22명)	59.3% (48명)	11.1% (9명)	7.4% (6명)

8) 교재

교사들은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의 수준이 상반 학생들에게는 적절(66.7%-6명)하다'고 하였고, 하반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다'(66.7%-6명)고 응답하였다.

<표 IV1-8-1> 교재 난이도

구분	매우 쉽다	다소 쉽다	적절하다	어렵다
상반	11.1% (1명)	22.2% (2명)	66.7% (6명)	0.0% (0명)
구분	매우 어렵다	다소 어렵다	적절하다	쉽다
하반	11.1% (1명)	66.7% (6명)	22.2% (2명)	0.0% (0명)

교사들은 교과서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을 때,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55.6%(5명)가 '학생 수준에 맞는 보충교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표 IV1-8-2> 수업의 난이도 조절방법

구분	어렵거나 쉬운 파트는 제외하고 가르친다	추가 수업활동을 진행한다	학생 수준에 맞는 보충교재를 사용한다	추가 과제를 준다
백분율 (%)	11.1% (1명)	33.3% (3명)	55.6% (5명)	0.0% (0명)

교사들은 교과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부분으로 상반에서는 ‘문법설명’ (36.0%-5명), 하반은 ‘읽기’ (41.7%-5명)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예비교사는 수업을 할 때 하반 학생들 대부분이 스펠링을 잘 읽지 못하여 철자 읽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고 말했다.

<표 IV1-8-3> 교과서에서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항목

구분	단어	문법설명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상반	20.2% (2명)	36.0% (5명)	0.0% (0명)	15.4% (2명)	7.7% (1명)	20.8% (3명)
하반	33.3% (4명)	16.7% (2명)	0.0% (0명)	8.3% (1명)	0.0% (0명)	41.7% (5명)

9) 반배정

본 연구가 진행된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중간, 기말고사 성적으로 수준별 반배치를 진행하였다. 반배치고사에서는 네 가지 스킬(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선다형 방식으로 읽기를 주로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현재 진행되는 반배정 방식에 대하여 59.9%(133명)가 ‘매우 만족하거나 그럭저럭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16.2%(36명)는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표 IV1-9-1>반배정 방식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그럭저럭 만족한다	보통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백분율 (%)	14.0%(31명)	45.9%(102명)	26.1%(58명)	16.2%(36명)

10) 멀티미디어 사용

교사들은 상·하반 모두에서 ‘멀티미디어를 가끔 사용한다’ (77.8% - 7명)고 했으며, 상반에서는 ‘과워포인트’ (45.5% - 5명)를, 하반에서는 ‘과워포인트’ (36.4% - 4명)와 ‘비디오 영상물’ (36.4% - 4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70% - 7명)가 가장 많았다.

<표 IV1-10-1>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구분	CD-ROM	과워포인트	비디오 영상물
상반	27.3%(3명)	45.5%(5명)	27.3%(3명)
하반	27.3%(3명)	36.4%(4명)	36.4%(4명)

<표 IV1-10-2>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

구분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교과서 외에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발음 등 교사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타
백분율 (%)	70.0%(7명)	30.0%(3명)	0.0%(0명)	0.0%(0명)

2. 수준별 수업의 효과

1) 수준별 수업의 효과

인터뷰에 응한 예비교사는 강의를 할 때 수준별로 학급이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실력에 맞춘 눈높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급 구성은 교사가 학생들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준비 하기에 수월하였고, 학생들 또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은 수준별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그 중 약 33.3%(3명)는 수준별 수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표 IV2-1-1> 수준별 수업의 효과(교사)

구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조금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분율 (%)	33.3%(3명)	66.7%(6명)	0%(0명)	0%(0명)

학생들 또한 수준별 수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지에 따르면 9.0%(20명)의 학생이 ‘수준별 수업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고 말했으며, 48.6%(108명)이 ‘수준별 학습이 영어실력 향상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고 했다. ‘도움이 조금 된다’ 고 응답한 학생은 12.2%(27명)이었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대답한 학생은 0.0%(0명)였다. 반별 학생들의 응답 퍼센트를 살펴보면 특히 상반(Red반)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당히 도움이 되거나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60.7%-49명)). 반면 하반기(Green반) 학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거나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학생들이 29.1%(9명)에 그쳤다.

<표 IV2-1-2> 수준별 학습의 효과(학생)

구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조금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Red 반	9.9%(8명)	50.6%(41명)	27.2%(22명)	18.5%(15명)
Yellow 반	6.0%(4명)	58.2%(39명)	25.4%(17명)	11.9%(8명)
Blue 반	14%(6명)	48.8%(21명)	34.9%(15명)	2.3%(1명)
Green 반	6.5%(2명)	22.6%(7명)	45.2%(14명)	9.7%(3명)

수준별 수업의 연장으로 상반기 학생들에게만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97.5%(79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표 IV2-1-3>원어민 수업이 영어 실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상반-Red 반)

구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조금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분율 (%)	22.2%(18명)	58.0%(47명)	17.3%(14명)	7.4%(6명)

2) 수준별 수업 후 실력 향상 정도

학생들은 실제 수준별 학습 결과 30.6%(68명)가 ‘문법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읽기’가 23.9%(53명)로 높았다. 특히 상반기(Red반) 학생들에게서 ‘문법’이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Green반)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준별 수업 진행 현황에서 교사들이 상반(Red반)에서는 ‘문법’, 하반에서는 ‘읽기’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 결과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겠다.

<표 IV2-2-1> 실력 향상 분야

구분	문법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Red 반	39.5% (32명)	9.9% (8명)	19.8% (16명)	16.0% (13명)	12.3% (10명)
Yellow 반	44.8% (30명)	9.0% (6명)	22.4% (15명)	9.0% (6명)	11.0% (11명)
Blue 반	14.0% (6명)	11.6% (5명)	32.6% (14명)	16.3% (7명)	23.3% (10명)
Green 반	0.0% (0명)	25.8% (8명)	29.0% (9명)	16.1% (5명)	29.0% (9명)

교사가 수준별로 준비하여 진행하는 퀴즈나 게임을 통한 수업방식에 대해 37.8%(84명)의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학급별로 보면 상반(Red반) 학생들이 ‘퀴즈나 게임을 통한 수업방식’에 대해 하반(Green반) 학생들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2-2> 퀴즈나 게임을 통한 실력 향상 정도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재미만 있을뿐 도움은 되지 않는다
Red 반	11.1% (9명)	43.2% (35명)	28.4% (23명)	22.2% (18명)
Yellow 반	9.0% (6명)	35.8% (24명)	22.4% (15명)	19.4% (13명)
Blue 반	4.7% (2명)	32.6% (14명)	39.5% (17명)	23.3% (10명)

Green 반	3.2%(1명)	35.5%(11명)	48.4%(15명)	12.9%(4명)
---------	----------	------------	------------	-----------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통해 ‘듣기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61.7%-50명)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말하기 실력(45.7%-37명)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하였다.

<표 IV2-2-3>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 분야

구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백분율 (%)	61.7%(50명)	0.0%(0명)	45.7%(37명)	1.2%(1명)

3) 수준별 학습의 장점

학생들은 수준별 학습의 장점으로 43.7%(97명)가 ‘내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받아서 좋다’ 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나와 같은 수준의 친구들과 수업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를 선택했으며, 특히 중하반(Blue반)과 하반(Green반)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수준별 학습의 장점

구분	내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받아서 좋다	나와 같은 수준의 친구들과 수업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교과서 외에 수준에 맞는 추가 교재 및 프린트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기타
Red 반	48.1%(39명)	30.9%(25명)	18.5%(15명)	13%(13명)
Yellow 반	38.8%(26명)	29.9%(20명)	17.9%(12명)	13.4(9명)

Blue 반	41.9%(18명)	37.2%(16명)	9.3%(4명)	11.6%(5명)
Green 반	40.2%(14명)	32.8%(8명)	10.9%(4명)	13.4%(4명)

4)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효과

교사들은 상반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55.6%-5명)고 하였으나, 하반에서는 88.8%(8명)가 ‘도움이 조금되거나 거의 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예비교사에 의하면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면 하반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힘들며, 영어 사용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고 하였다.

<표 IV2-4-1> 영어 사용 효과(교사)

구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조금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반	0.0%(0명)	55.6%(5명)	33.3%(3명)	11.1%(1명)
하반	0.0%(0명)	11.1%(1명)	44.4%(4명)	44.4%(4명)

학생들은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상반(Red반)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 응답했지만, 하반(Green반)에서는 교사의 영어 사용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하반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내용과 일치하여 흥미롭다.

<표 IV2-4-2> 영어 사용 효과(학생)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Red 반	14.8% (12명)	44.4% (36명)	32.1% (26명)	13.6% (11명)
Yellow 반	9.0% (6명)	37.3% (25명)	31.3% (21명)	13.4% (9명)
Blue 반	4.7% (2명)	34.9% (15명)	53.5% (23명)	7.0% (3명)
Green 반	3.2% (1명)	22.6% (7명)	25.8% (14명)	45.2% (8명)

3. 수준별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

수준별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교사용 설문지보다 학생들의 설문지를 더 많이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학생용 설문지에는 수준별 수업을 받으면서 느꼈던 내용 및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이상적인 반편성 방법

학생들의 70.3%(156명)은 매 학기 중간, 기말고사 점수로 반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대답하였다.

<표 IV3-1-1> 희망하는 반편성 방법(학생)

구분	자체 제작한 영어시험	중간, 기말고사 점수	수행평가	기타
Red 반	11.1%(9명)	70.4%(57명)	3.7%(3명)	18.5%(15명)
Yellow 반	13.4%(9명)	76.1%(51명)	4.5%(3명)	7.5%(5명)
Blue 반	2.3%(1명)	65.1%(28명)	18.6%(8명)	14.0%(6명)
Green 반	6.5%(2명)	64.5%(20명)	6.5%(2명)	22.6%(7명)

교사들 또한 매 학기마다 반편성(100.0%-9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급별 이상적인 학생수에 관한 질문에서는 상반은 '20-10명' (88.9%-8명)을 하반에서는 '10명 미만' (77.8%-7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IV3-1-2> 반별 이상적인 학생 수(교사)

구분	30-20명	20-10명	10명 미만	기타
상반	0.0%(0명)	88.9%(8명)	11.1%(1명)	0.0%(0명)
하반	0.0%(0명)	22.2%(2명)	77.8%(7명)	0.0%(0명)

2) 수준별 수업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야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통해 네 가지 스킬(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에 ‘쓰기 실력’ (33.8%-75명)을 가장 향상시키고 싶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주목할만한 점은 상반(Red반)은 ‘듣기 실력을 가장 많이 향상시키고 싶다’고 한데 반해, 나머지 중상반(Yellow반), 중하반(Blue반), 하반(Green반)은 모두 ‘쓰기 실력을 가장 향상시키고 싶다’고 대답했다.

<표 IV3-2-1> 실력 향상 희망 분야

학급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Red 반	40.7%(33명)	23.5%(19명)	27.2%(22명)	28.4%(23명)
Yellow 반	34.3%(23명)	6.0%(4명)	31.3%(21명)	38.8%(26명)
Blue 반	16.3%(7명)	18.6%(8명)	32.6%(14명)	32.6%(14명)
Green 반	12.9%(4명)	16.1%(5명)	32.3%(10명)	38.7%(12명)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교사가 어떤 부분을 보충해주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배운 내용 반복해서 설명하기’ (45.0%-100명)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상반(Red반)보다 하반(Green반)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상반: 45.7%(37명), 하반: 51.0%(35명))

<표 IV3-2-2> 보충 받고 싶은 부분

구분	배운 내용 반복해서 설명하기	추가 보충 교재로 학습하기	영어권 나라의 뉴스나 드라마 로 학습하기	기타
Red 반	45.7% (37명)	22.2% (18명)	35.8% (29명)	4.9% (4명)
Yellow 반	50.7% (34명)	14.9% (10명)	28.4% (23명)	6.0% (4명)
Blue 반	44.2% (19명)	20.9% (9명)	18.6% (8명)	16.3% (7명)
Green 반	51.0% (35명)	16.1% (5명)	19.4% (6명)	13.5% (11명)

3) 이상적인 수업 방식

교사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수법은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 달랐다. 상반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 (Grammar Translation Method)과 ‘그룹활동’ 이 각 36.4%(각 4명)로 가장 높았고, 하반은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업’ 이 53.8%(7명)로 가장 높았다.

<표 IV3-3-1> 효과적인 교수법(교사)

교수법	문법 번역식 교수법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업	개인과제 수행	그룹활동
상반	36.4% (4명)	18.2% (2명)	9.1% (1명)	36.4% (4명)
하반	15.4% (2명)	53.8% (7명)	23.1% (3명)	7.7% (1명)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룹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가장 좋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퀴즈나 게임을 통한 수업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상반(Red반)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았다. 반면 하반(Green반) 학생들은 ‘선생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였다.

<표 IV3-3-2> 희망하는 수업 방식(학생)

구분	선생님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법	퀴즈나 게임을 통해 배우는 방법	그룹활동을 통해 배우는 방법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Red 반	32.1% (26명)	33.3% (27명)	34.6% (28명)	4.9% (4명)
Yellow 반	35.8% (24명)	25.4% (17명)	43.3% (29명)	11.9% (8명)
Blue 반	30.2% (13명)	34.9% (15명)	30.2% (13명)	4.7% (2명)
Green 반	32.3% (10명)	22.6% (7명)	16.1% (5명)	19.4% (6명)

또한 학생들은 희망하는 수업 방식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가 '문법 설명은 한국어로 했으면 좋겠다' (67.1%-149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22.5%(50명)가 '모두 한국어로 수업했으면 좋겠다' 고 응답했다.

<표 IV3-3-3> 한국어 수업 희망 부분

구분	영어로 모두 수업했으면 좋겠다	문법 설명은 한국어로 했으면 좋겠다	숙제에 관한 부분은 한국어로 설명했으면 좋겠다	모두 한국어로 수업했으면 좋겠다
Red 반	9.9% (8명)	64.2% (52명)	8.6% (7명)	23.5% (19명)
Yellow 반	4.5% (3명)	70.1% (47명)	23.9% (16명)	23.9% (16명)
Blue 반	0.0% (0명)	62.8% (27명)	14.0% (6명)	23.3% (10명)
Green 반	3.2% (1명)	74.2% (23명)	6.5% (2명)	16.1% (5명)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수준별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수준별 학습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 모두가 ‘수준별 수업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나(33.3%-3명)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66.7%-6명)고했으며, 학생들 또한 ‘수준별 학습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9.0%-20명), ‘수준별 학습이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48.6%-108명), ‘도움이 조금 된다’ (12.2%-27명)고 응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수준별 학습의 효과를 인정하였다. 특히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하반 학생들보다 상반 학생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상반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에서도 97.5%(79명)의 학생들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수준별 수업을 받은 후 가장 많은 실력이 향상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상반 학생들은 ‘문법실력’ (30.6%-68명)이라고 하였으며, 하반 학생들은 ‘읽기 실력’ (23.9%-53명)이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교사들이 상반에서는 문법을, 하반에서는 읽기 실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한 것과 일치하여 학생들이 수준별 수업의 도움을 받아 각 분야의 실력이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의 장점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받아서 좋다’ (43.7%-97명)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나와 같은 수준의 친구들과 수업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를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하반과 하반 학생들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보아 수준별 수업이 학생들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수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어 보다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제공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하였다.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을 할 때 반별 레벨에 따라 ‘강의 속도’ (35.7%–5명)에 가장 차별을 두어 수업을 하였다. 교사들은 하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 속도를 조금 더 늦추고,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르쳤다.

또한 상반과 하반에서 수업을 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에도 차이를 두었는데, 상반에서는 77.8%(7명)가 ‘20~30%의 영어를 사용’하였고,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11.1%(1명)에 그쳤다. 반면 하반에서는 55.6%(5명)가 ‘20~30%의 영어를 사용’하였고,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44.4%(4명)나 되었다. 하반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학생들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반 학생들 또한 45.2%(8명)가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하반 학생들에게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상반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매우 도움이 된다’ (14.8%–12명), ‘다소 도움이 된다’ (44.4%–36명)고 응답하여 상반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사용한 수업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네 가지 스킬(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수준별로 수업 방식을 달리하였다. 먼저 ‘듣기’를 가르칠 때, 상반에서는 듣기 전·후의 활동으로 ‘브레인스토밍하기’ (63.6%–7명)와 ‘내용 요약하기’ (45.5%–5명)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하반에서는 ‘듣기지문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학습 하기’ (80.0%–8명)와 ‘대본 따라읽고 해석하기’ (80.0%–8명)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읽기 활동으로는 상반에서는 ‘읽기에 관련된 질문에 학생 스스로 답찾기’ (58.3%–7명)를, 하반에서는 ‘모든 지문 읽고

해석하기’(90.0%-9명)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말하기 활동으로는 상·하반에서 모두 ‘패턴 연습과 다이얼로그 읽기’를 주로 하여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상반에서는 ‘상황극 연출하기’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말하기 지도를 할 때 교사들은 상·하반 모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감 불어넣어 주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다. 쓰기 활동은 상·하반 모두 ‘교과서 읽기 파트의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쓰기 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이 외에 상반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 글쓰기’를 진행하였고, 하반은 ‘삽화가 많이 삽입된 추가 쓰기 교재’를 사용하였다. 진행된 쓰기 활동에 대한 오류 수정시 교사는 상·하반 학생들에게 방식을 달리하였는데, 상반에서는 ‘오류 수정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시만 해주고 학생이 고치게 하는 방법’(55.6%-5명)을 주로 사용하였고, 하반에서는 ‘오류 대부분을 고쳐주는 방법’(66.7%-6명)을 사용하였다.

교과서의 난이도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상반 학생들에게는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하반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다고 하였다.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보충교재 사용한다’(55.6%-5명)고 하였다. 교사들은 수업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내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가끔 사용한다’(77.8%-7명)고 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로 상반에서는 ‘과워포인트’(45.5%-5명), 하반에서는 ‘과워포인트와 비디오 영상물’(각 36.4%-4명)을 꼽았다.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반편성 방법으로는 ‘매학기 중간, 기말고사 점수로 반편성을 하는 것’(70.3%-156명)을 꼽았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과 같은 것으로 학생들은 반편성 방법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수는 상반은 ‘20-10명’(88.9%-8명),

하반은 ‘10명 미만’ (77.8%-7명)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야로 상반은 ‘듣기실력’을, 나머지 중·하반은 ‘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교사가 보충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으로 ‘배운 내용 반복해서 설명하기’ (45.0%-100명)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을 위한 수업 방식으로 교사는 상반에서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 (GTM)과 ‘그룹활동’ (각 36.4%-4명)을, 하반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업방식’ (53.8%-7명)을 선호하였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 상반 학생들은 ‘그룹활동’ (34.6%-28명)을, 하반 학생들은 ‘선생님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법’ (32.3%-10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상반학생들은 자신이 학습의 주체로서 스스로 탐구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하반 학생들은 교사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학습방법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수업에서 상·하반 학생들 모두 ‘문법 설명은 한국어로 했으면 좋겠다’ (67.1%-149명)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는 각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방법이 각각 다름을 증명하였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수준별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학생들은 수준별 수업으로 인해서 교사가 중점을 두고 교수했던 분야의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구는 특정 학교에 국한되어 진행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다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참고 문헌

강보람, 조운경. (2012). 중학교 영어과 수준별 수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3(2), 102-120.

교육인적자원부. (2001). *제7차 교육과정 좀 더 알아봅시다*. 교육부.

권선희, 이정은. (2012). 수준별 과학-영어 내용중심 수업에서의 초등학생 영어의사소통능력향상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24(3), 240-256.

권처연. (2000). *중학교 영어과 수준별 수업의 효과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전.

김순채. (1998). *수준별 과제중심학습을 통한 영어학습이 EFL 초보학습자의 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김용석. (2011). 평준화와 수준별이동수업 교육정책이 영어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23(4), 248-266.

김영숙, 이지연. (2009).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64(4), 337-368.

김재익. (2003). *고등학교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김재춘. (1999).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김종신. (1999). *수준별 소집단 과제학습을 통한 영어 독해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강릉.

민찬규. (1999). 영어과 수준별 교육 과정의 운영 방안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5(2), 229-252.

박선화. (2005).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박상옥. (2006). 수준별 영어 수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교사 변인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61(2), 25-44.

백병부. (2010). 학습부진 극복 여부에 대한 수준별 하반 편성 및 특별보충수업의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0(4), 84-110.

신인숙. (2005).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년과 집단에 따른 인식 비교, *영어교육*, 60(2), 223-243.

안병규, 김진완, 김태화, 나윤희, 신인숙, 오준일, 이은경, 이화자, 임근용, 정월미. (2005). *중등 영어과 교재모형 개발 : 수준별 및 자기주도적 학습 중심*, *영어교육*, 60(4), 323-350.

윤상미, 한호. (2008). 초등영어 수준별 수업 실험연구, *현대영어교육*, 9(1), 238-254.

윤용진. (1998).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안, *영어교육연구*, 8, 177-188.

이남숙, 임병빈. (2006). 수준별 소집단 협력학습 유형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영어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12(4), 212-233.

이화자, 정정옥. (2005). 학습 태도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 *현대영어교육*, 6(2), 151-181.

전영주, 강용구, 송해성. (2006). WBI 수준별 수업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방안, *영어어문교육*, 12(4), 118-138.

조항덕. (2005). 학습자 중심의 외국어 교육방법 연구: 멘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교육학회*, 14(4), 329-350.

최미정, 정영숙. (2009). 주제중심의 초등영어 수준별 통합수업의 인지적, 정의적 효과, *초등영어교육*, 15(1), 32-57.

최명희. (2000). *영어과 수준별 수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한국교육개발원. (1997). *제 7차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모형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허유성, 남창우. (2009). 학습부진 프로그램, 수준별 이동수업 및 사교육이 저성취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 학습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4(3),128-146.

Ausubel, D. (1964). Adults vs. childre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Modern Language Journal*, 48, 420-424.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Longman.

Gagne. R. S. (1970). *The condition of learning*.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iaget, J. (1968). *Language and thought from the generic point of view*. NY: New York Random House.

Rogers, C. R. (1967).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ts impact: A study of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cs*. Ohio: Ohio University Press.

Skehan, P.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Tomlinson, C. (1999). *The differentiated classroom: Responding to the needs of all learner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differentiated high school English classes and the way of the improvement through the survey of teachers and students

Hwang, Sun Kyung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differentiated high school English classes are performed and examine how much the classes influence students and then find the method for better classes. This study is executed through interview with a student teacher and survey from 9 teachers and 222 students. The survey for teachers and students consists of 10 and 3 sections each.

The research shows that teachers differentiated students in teaching method, frequency of speaking English, adaptation of textbook and material by their ability.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ted English classes, it was proved that the classes affected the improvement of students' ability, and the improved par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tudents' level. High ability group improved a grammar skill whereas low ability group raised a grade of reading skill.

By taking differentiated English classes, students lower affective filter because they study with the same ability group members. This phenomenon remarkably occurs in a low ability group.

According to the use of English in classes, the research shows that it is helpful to high ability group, but not to low ability group.

For the better differentiated English classes, teachers think the appropriate number of students for high ability group is 10 to 20, and for low ability group is less than 10.

From the differentiated English classes, high ability group hopes to improve listening skill while the other groups want to improve writing skill.

Teachers think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is different by students' level. To be specific, for the high ability group, GTM(Grammar Translation Method)is appropriate whereas for the low ability group, the method in which uses variety of pictures and videos are effective. Students also have different opinion about ideal teaching method according to their level. High ability group wants to learn English by doing group work whereas low ability group hopes to have teacher-oriented classes.

In a conclusion, teachers use different teaching method by students' level so that students think a differentiated English classes is effective to improve their ability. For the advanced differentiated English classes, teachers should consider various students' needs and study students' interests on different level.

2. 수준별 수업시 어느 부분에 차이를 두고 교수하십니까?

- ① 강의 속도 ② 교실활동 ③ 영어사용 정도 ④ 과제

3. 수준별 수업시 어느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반:

- ① 문법 번역식 교수법 ②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업
③ 개인 과제 수행 ④ 그룹활동

하반:

- ① 문법 번역식 교수법 ②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업
③ 개인 과제 수행 ④ 그룹활동

Listening

1. pre-listening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상반:

- ① 시각 자료 제시 ② brainstorming 하기
③ 듣기지문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학습 ④ 기타

하반:

- ① 시각 자료 제시 ② brainstorming 하기
③ 듣기지문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학습 ④ 기타

2. 듣기 후,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상반:

- ① main idea 찾기 ② dictation 하기
③ summary 하기 ④ script 따라읽고 해석하기

2. speaking 지도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반:

- ① 학생들에게 자신감 불어넣어주기 ② 오류 수정해 주기
- ③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④ 기타

하반:

- ① 학생들에게 자신감 불어넣어주기 ② 오류 수정해 주기
- ③ 최대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④ 기타

Writing

1. 학생들과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상반:

- ① 교과서 읽기 파트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쓰기 활동
- ② 영어 일기 쓰기
- ③ 한 가지 주제에 대한 free writing 활동
- ④ 기타

하반:

- ① 교과서 읽기 파트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쓰기 활동
- ② 영어 일기 쓰기
- ③ 한 가지 주제에 대한 free writing 활동
- ④ 기타

2. error correction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상반:

- ① 오류의 대부분을 고쳐준다 ② 큰 오류만 고쳐준다
- ③ error correction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시만 해주고 학생이 고치게 한다

④ 기타

하반:

- ① 틀린 부분의 대부분을 고쳐준다 ② 큰 오류만 고쳐준다
③ error correction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시만 해주고 학생이 고치게 한다
④ 기타

영어 사용

1. 수준별 수업시 영어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상반:

- ① 100% ② 50% ③ 20-30% ④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반:

- ① 100% ② 50% ③ 20-30% ④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

- ① 상당히 도움이 된다 ②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조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반:

- ① 상당히 도움이 된다 ②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조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어떤 부분에 영어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상반: ① 인사말 ② 지시사항 ③ 내용 설명 ④ 과제 설명

하반: ① 인사말 ② 지시사항 ③ 내용 설명 ④ 과제 설명

교재

1. 현재 지도하시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 ① 매우 쉽다 ② 다소 쉽다 ③ 적절하다 ④ 어렵다

하반: ① 매우 어렵다 ② 다소 어렵다 ③ 적절하다 ④ 쉽다

2. 교과서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하십니까?

① 어렵거나 쉬운 파트는 제외하고 가르친다

② 추가 수업활동을 진행한다

③ 학생 수준에 맞는 보충교재를 사용한다

④ 추가 과제를 준다

3. 수준별 수업시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십니까?

상반:

① 단어 ② 문법설명 ③ 듣기 ④ 읽기 ⑤ 말하기 ⑥ 쓰기

하반:

① 단어 ② 문법설명 ③ 듣기 ④ 읽기 ⑤ 말하기 ⑥ 쓰기

반배정

1. 수준별 반 배치시 어느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십니까?

① 자체 제작한 영어시험 ② 중간, 기말고사 ③ 수행평가 ④ 기타

2. 반배치고사시 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까?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3. 어느 주기로 반 편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얼마마다 반 편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행 방법:

① 매학년마다 ② 매학기마다 ③ 2~3달마다 ④ 기타

이상적인 시행 주기:

① 매학년마다 ② 매학기마다 ③ 2~3달마다 ④ 기타

4.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상반: ① 30-20명 ② 20-10명 ③ 10명 미만 ④ 기타

하반: ① 30-20명 ② 20-10명 ③ 10명 미만 ④ 기타

멀티미디어 사용

1. 수업 시간에 멀티미디어를 (CD-ROM, 파워포인트, 비디오 등)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상반:

① 항상 사용한다 ② 자주 사용한다 ③ 가끔 사용한다 ④ 사용하지
않는다

하반:

① 항상 사용한다 ② 자주 사용한다 ③ 가끔 사용한다 ④ 사용하지
않는다

2. 어느 멀티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상반: ① CD-ROM ② 파워포인트 ③ 비디오 영상물 ④ 기타

하반: ① CD-ROM ② 파워포인트 ③ 비디오 영상물 ④ 기타

3.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 ② 교과서 외에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 ③ 발음 등 교사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 ④ 기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 (학생용)>

* 본 설문지는 수준별 학습의 효과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남 _____ 여 _____

2. 반

① Red반 ② Yellow반 ③ Blue반 ④ Green반

3. 수준별 학습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도움이 된다 ②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조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듣기 ② 읽기 ③ 말하기 ④ 쓰기

4. 수준별 학습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① 내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받아서 좋다
② 나와 같은 수준의 친구들과 수업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③ 교과서 외에 수준에 맞는 추가 교재 및 프린트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다
④ 기타

5. 반 편성 기준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그럭저럭 만족하다
- ③ 보통이다 ④ 개선이 필요하다

6. 반 편성시 어느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체 제작한 영어시험 ② 중간, 기말고사 점수
- ③ 수행평가 ④ 기타

7. 수준별 영어 수업을 받을 때 특히 어느 부분의 실력이 향상되었습니까?

- ① 문법 ② 듣기 ③ 읽기 ④ 말하기 ⑤ 쓰기

8.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 완벽히 이해한다 ② 대부분 이해한다
- ③ 반 정도 이해한다 ④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8-1 선생님께서 어느 부분을 한국어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 ① 영어로 모두 수업했으면 좋겠다
- ② 문법 설명은 한국어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 ③ 숙제에 관련된 부분은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 ④ 모두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8-2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수준별 수업을 받을 때 어느 수업 방식이 가장 좋습니까?

- ① 선생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시는 방법
- ② 퀴즈나 게임을 통해 배우는 방법
- ③ 그룹활동을 통해 배우는 방법
- ④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10. 퀴즈나 게임을 통한 수업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④ 재미만 있을 뿐 도움은 되지 않는다

11. 수준별 학습을 통해 향상시키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듣기 ② 읽기 ③ 말하기 ④ 쓰기

12.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어느 부분을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 ① 배운 내용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기
- ② 추가 보충 교재로 학습하기
- ③ 영어권 나라의 뉴스나 드라마로 학습하기
- ④ 기타

RED반 학생만 기입해 주세요

13.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이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 ① 상당히 도움이 된다 ②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 ③ 도움이 조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1.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됩니까?

- ① 듣기 ② 읽기 ③ 말하기 ④ 쓰기

14.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있습니까?

- ① 매우 재미있다 ② 재미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재미없다

14-1.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 ② 수업방식이 재미있다
- ③ 선생님 스타일이 재미있다
- ④ 기타

15.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① 전혀 지장이 없다
- ② 약간 지장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수업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